“진정한 성찰, 코로나 위기와 우울감 타파 해법”

A6면에서 계속

Q. 다각 소임 보시면서 선곡 스님과의 인연도 남다르셨다는데. 용성 스님의 손상좌이고 당시 칠전 선원 조실이셨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날 차를 갖다 드리는데 잠시 앉으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세상에서 뭣이 제일 크냐’ 고 물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마음’ 이라고 답했죠. 애초부터 마음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고 〈초발심자경문〉도 〈사집〉〈경전〉도 결국은 마음 찾는 길이니까. 근데 스님께서 웃으시며 ‘마음이 어찌 제일 크냐, 하늘이 더 크지’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졌지요. ‘왜 하늘이 더 크다고 하셨을까. 마음이 커야 하늘이 큰데.’ 한 두달 있다가 다시 차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 물었지.

‘스님, 마음이 더 큰데 어찌 하늘이 크다고 하십니까.’ 한참을 차만 드시던 스님이 이윽고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차를 마셨다. 너는 안 마시지 않았느냐’ ‘네, 스님.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차는 네가 마셔야지’ ‘스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 이것이 네가 너의 차를 마실 수 있는 도리다.’ 선각 스님이 준 내 평생의 화두야. 강원을 졸업할 무렵, 스님이 다시 부르셔서 가 봤더니, 걸망을 준비하라시며 가사와 편지를 주셨어요. 합천 해인사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로 해인사 용탑선원서 고암 스님을 2년 시봉하며 참선 공부를 했습니다.”

Q. 스님께서는 당대 큰스님들과 교류하고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행길에 남다른 가르침을 구한 스님이 적지 않았을 듯 합니다.

“경봉 스님과의 만남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경봉 스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도 명성이 대단했죠. 극락선원에 가서 대뜸 그랬지. ‘옛날 용성 스님이 제방선원에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일구(一句)를 일러라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를 랍니다.’

그리고는 ‘남산화(南山花) 북산홍(北山紅)이라. 남산의 꽃이 북쪽 산에 가서도 붉습니다’ 고 했지. ‘더 정진해라’ 하시더라고. 삼배 하고 문턱을 나서는데 ‘용성 스님이 없어 한이로다’ 하시데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우쭐함을 누르고 다시 들어가 ‘감사합니다’ 하며 삼배 올리고 나왔죠. 그리고는 한 10여년을 제방 선원을 돌며 만행했어요. 경봉 스님을 시작으로 고암 스님, 지월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을 모두 그때 친견했죠.”

Q. 여러 선원서 만행하며 수행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미래사와 비로암 등 토굴서 홀로 용맹정진을 하셨지요?

“선방서 대중과 함께 참선하면 대중의 치열함이 곧 수행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선방을 돌며 참선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 화두가 한창 잘 들리는데 정해진 시간마다 죽비 치고 또 공양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대중을 떠나야겠구나 싶었지요.

통영 미래사로 갔어요. 미래사에는 서토굴과 동토굴이 있는데 서토굴은 효봉 스님의 출가처고, 동토굴은 구산 스님 정진처죠. 서토굴에 한 1년 좀 넘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1972~1973년 경인가, 30대 초반 무렵 선암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던 비로암터에 작은 토굴을 하나 지어서 3년간 두문불출 했지. 사중서 한달에 한번 된장과 쌀 반말을 토굴 아래 비로대라는 돌에 두고 가기도 하고, 도토리, 고사리를 따먹기도 하면서 내내 앉아만 있었어요.”

Q. 실제로 비로암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순간 기러기가 구욱구욱하면서 산으로 날아가요. 하, 그 순간 뭐라고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 없는 공허로움이랄까. 그런 가없는 마음이 솟아. 말 그대로 천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지. 막대기로 마당에 지필을 새겼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써내려간거야.

천심비로화개홍(千深毘盧花開紅)이요
만리장천안성백(萬里長天雁聲白)이라.
용로중출청량월(鎔爐中出淸涼月)하니
삼라상두무영인(森羅相頭無影印)이로다



참부처가 되는 것은 강에 비친 달을 봐선 안되고 직접 달을 보는 것, 즉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부처가 되는 도리라고 강조하는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친구 죽음 통해 15세 때 선암사로 출가
비로암 토굴서 3년간 두문불출 수행해
금둔사 복원중창… 야생차대중화 앞장
코로나 사태, 인류 절제 삶살라는 경책



지허 종정 스님이 선암사 대각암 종정원에서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로암은 천길이나 깊은데 꽃(진달래)은 피어 붉고
만리나 되는 너른 하늘에 기러기 소리 맑구나
용광로에서 서늘한 달이 뜨니
삼라만상은 머리 위에 그림자 없는 도장 찍었도다

Q.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신 환희로운 순간입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필을 휘갈겨두고 산을 내려오는데 보는 것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 길로 구산 스님이 조실로 계시는 삼일암을 찾아갔습니다. 머리가 길고 행색은 거지처럼 허망해도 삼배는 얌전히 하고 마주 앉았지.

‘어디서 왔냐’ 고 묻기에 ‘조계산 양지에서 왔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은 음지에 산다는 의미라.(웃음) 몇 번 질답이 오갔지. 그리고 비로암에 갈겨두고 온 지필을 다시 써보였더니, 스님께서 손을 꽉 잡으시데요. 보니 또 가을이 한창이라. ‘스님, 가을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감도 익은 감도 떨어진다’ 고 하셔. ‘전 선감도 익은 감도 다 먹습니다’ 라 했지요.(웃음) 스님이 아주 환희스럽게 웃으셨어요. 이후에도 인연이 계속 이어졌죠.”

Q. 1979년 선암사 주지 소임 이후에는, 그간 수행에만 매진했던 바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셨는데요. 태고종단 소임도 맡으셨지요. 야생차밭을 일구시는가 하면, 당시 터만 남았던 금둔사 복원불사도 이뤄내셨습니다.

“당시 비로암서 3년 살다 선암사로 내려왔더니 조계종과 소유권 분쟁이 한창이더군요. 노장 스님들 명의로 법집행이 들어오니 절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주지를 맡았어. 임기가 원래 4년인데, 2년 좀 넘게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겠다고 관뒀지.(웃음) 그래도 나중에 다시 주지하면서 선암사 전각 복원불사도 꽤 했어요.

금둔사는 1979년 선암사 주지 소임 당시에 인연이 됐어요. 우연히 그 터에 방치된 탑과 불상을 봤지. 내내 마음이 쓰여서 결국 부처님 사진을 찍어 군청에 갔어요. 보물급 문화재인데 이렇게 방치중이니 바로 모셔달라면서,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200만원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한달쯤 지났나, 군청서 돈을 도로 돌려주고는 ‘스님이 불사하시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고 하대요. 그 길로 금둔사터 복원불사를 시작해서 탑도 세우고 부처님도 모셨지요.”

Q. 종정 스님 하면 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라져 가는 한국 야생차를 지켜내기 위해 직접 차밭을 일구시고 이를 토대로 한국차문화를 복원,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예로부터 다선일미라 했습니다. 차와 선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참선 맛을 모르면 차의 맛도 몰라요. 차의 맛을 제대로 알려면 참선을 통해 깊은 수행의 경지에 들어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가 몇시간이고 좌선을 하다가 마시는 차예요. 그 순간 마시는 한 잔의 차는 정말 기가 막히지요. 선다일여라, 요즘 선지식이 없고 스님들 공부가 시원찮은 것은 차를 안 마셔서 그런겁니다.(웃음)

Q. 스님께서는 어떤 종정이 되고자 하십니까?

“태고종 종조인 태고보우 스님께서 17세에 출가해 장흥 보림사까지 걸어와 참선을 시작했고 일생을 참선만 하신 분입니다. 이런 태고 스님의 종지종풍을 번창시키는 것이 우리 종단의 목표이자 종정으로서 제 개인의 목표입니다. 최근 태고종 선풍이 약하다고 하는데, 시절인연이 닿으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Q.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새해 벽두 가르침을 주신다면요.

“한국의 전통을 계승해 온 불교의 강점을 확실히 알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분명 밝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류에게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경책이예요. 너무 방만하게 살지 말고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는 경고지요. 이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참나를 찾는 성찰이 작금에 닥친 위기와 개개인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韓國佛教太古宗

宗正指墟 예경실장 印峯

僧正院

僧正 德化,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院 德山, 錦龍, 山翁, 泰宇, 性雨, 鏡潭, 覺林, 南坡, 靑山, 明月, 智弘, 雪山, 法宣, 吉祥, 智山, 保惠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祥明
次席副議長 慧日

護法院長 智玄
副院長 觀正
委院 智淸, 普雲, 虎山, 淸山, 晩愚, 惺應, 六和

初審院長 九山
副院長 晩愚
委院 金輪, 德明, 碧岩, 法能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月峰
副委員長 法蓮
委院 鳳峰, 法一, 智海

總務院長 虎溟
副院長 善慧
總務部長 道悜
教務部長 正曉眼能
財務部長 圓峰晴悟
文化部長 眞心震空
社會部長 道華圓
弘報部長 正宗
糾任·傳法部長
校務委員
宗策委員長 智弘
教育院長 法眼
布教院長 法京
考試委員長 才弘
法規委員長 慧周
社會福祉院長 休完
東邦佛教大學學長 常眞
教學處長 哲悟
全國信徒會長 錫墋
靑年會長 承允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Tel 02) 739-3450, Fax 02) 739-3470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수석부의장 청명
부의장 혜일
종회의원 법륜, 정수, 송월, 혜담, 법윤, 혜신, 혜경, 원만, 정수, 보경, 법화심

종무원장 진성
부원장 도홍
총무국장 행담
교무국장 연수
규정국장 대공
포교국장 명각
재무국장 현진
문화국장 법진
사회국장 지오
교임국장 명현
주재기자 문선희

사부대중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장 혜정
부회장 혜안(보유자)
총무 정수
교무 법전
재무 지오
사무국장 법진

사부대중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